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 **문 의** : 사회문화연구부 장세길 연구위원
(063-280-7173, 010-3246-4824)
- **담 당** :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
(063-280-7111)

보도시점 : 2019년 5월 22일(수)부터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국가 주도 종합계획 수립, 기념재단의 기능과 조직 확대 필요
유적의 사적·기념물 지정, 브랜딩 전략과 조사연구사업 추진**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11일에 처음으로 개최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향후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은 국가가 주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세길 박사는 지역별 역사적 사건의 ‘기념’이 기존의 동학농민혁명 사업 방식(1.0)이라면 국가기념식 개최를 분수령으로 삼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현재에 실천하는 국가 주도의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 2.0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장 박사는 국가 주도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사업방향과 과제로 모두 여섯 가지를 제안했는데, 첫째, “2005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한 번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한 종합계획이 시급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기계획 수립과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제안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기념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념사업을 연계하면서 계승사업으로 이끌 구심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조사·연구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담당할 독립적 조직과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넷째,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전수조사하고, 각 유적을 대상으로 시급성, 원형보존성, 역사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에 산재해 있는 300여개의 동학농민혁명 유적 중에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은 5개소에 불과하며, 특히 국가기념일 제정 최종 후보지로 꼽힌 4개 추천일(무장기포일, 백산대회일, 황토현전승일, 전주화약일) 중에서 3개 추천일(무장기포일, 백산대회일, 전주화약일)과 관련된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장 박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장 박사는 기념·계승사업이 특정 장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예, 기념공원, 기념시설)에 집중하면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에 잠잠해진 지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으므로, 현대적 계승사업은 특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시민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하여 장 박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려는 기획된 상(像), 특히 가슴 뜨거운 분노와 자긍심을 기반으로 하는 감성적 계승사업을 위한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며, 동학농민혁명의 브랜드 정체성으로서 ‘한국민주주의 뿌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